일본 아자부 수의과대학을 다녀와서

김 지 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
jihye309@naver.com

2013년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본 아자부 수의과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나를 포함한 4명(석사학위생 1명,학부생 3명)이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처음 떠나기 전 난생 처음가보는 외국이라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방문한다는 기대감으로 그 두려움은 금세 설렘으로 바뀌었다. 일정이 시작되기 전날 담당자를 만나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학교에서 지켜야할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들은 후에 일찍 잠에 들었다.

학교 방문 첫날, 오전미팅에 모든 교수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병원소개를 받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자 선택한 과를 견학했다. 일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 교수님과 대학원 선생님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그 덕분에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통하여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거나 한국의 수의과대학에 관하여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학교를 둘러보던 중 가장 재미있었던 점은 학교 내에서 말, 돼지, 소, 양을 직접 기르는 곳이 있었다는 점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말, 돼지, 소를 실제로 매일 같이 보면 그 동물에 대하여 친근감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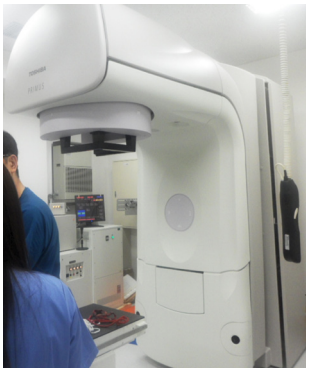
–〉 아자부 수의과대학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키우는 말들을 산책시켜 학교 내에서 말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돼지와 양, 염소의 사육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첫날 내가 방문한 과는 임상병리 실험실이었다. Dr. NEO 교수님이 현미경을 통해 조직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비록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생이고, 처음 보는 타국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주었고 그로 인해 거부감 없이 쉽게 가까워 질수 있었다. 첫날 나의 아자부 적응기는 이렇게 끝났고 welcome party에 참석 후 숙소로 돌아왔다.

아자부 수의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수요일은 surgery day, 목요일은 oncology day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요일엔 수술 케이스들을 많이 참관할 수 있었다. 아자부 수의과대학에서 수술은 외과뿐만 아니라 안과, 내과 등 대부분의 과가 진료이외에도 필요시 수술치료를 병행했다. 이 점이 우리 한국 수의과대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수술은 주로 외과가 담당하는데 반해, 아자부 수의과대학에서는 그 과가 맡은 환자들은 다른 과로 보내지 않고 담당한 과에서 필요하다면 외과적 수술도 맡아서 치료를 한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방면으로 여러 과목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내과적 지식뿐 아니라 초음파와 X-ray, 수술법 등), 환자에 관한 정보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까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아자부 수의과대학에서 종양 환자를 위한 radiotherapy가 실시되고 있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이 radiotherapy는 실제로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더 이상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방사선 교수님인 Dr. MARUO 교수님께서 radiotherapy에 관련하여 실제 사례들도 보여주고 그 효과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radiotherapy가 반려동물들을 위해서도 이용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반려동물을 마취 후 보정을 시킨 다음 종양이 생긴 위치에 맞추어 radiotherapy를 실시하면 되는데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효과는 탁월한 것 같았다.



– Radiotherapy시 이용하는 기계 –

–> 암 환자의 경우,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막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adiotherapy라는 치료법을 이용한다고 한다.

하루하루 아자부 수의과대학을 탐방하다보니 어느새 선생님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익숙해졌다. 친해진 교수님과 함께 맛있는 점심도 먹었고,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나또한 한국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새도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에 있으면서 주말에는 학교에서 마련해준 HATO bus tour를 통해 도쿄 시내를 관광하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많은 볼거리도 구경하며 일본 수의대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방사선 교수님과 함께 일본의 local 동물병원도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동물병원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 일본의 동물병원(대기실, X-ray room, 처치실, 수술실) –

–> 일본의 일반 지역동물병원도 한국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다. 기본적인 x-ray 기계나, 수술 장비들, 처치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지내다보니 어느새 훌쩍 10일이 지났다.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farewell party에 참석하여 수료증을 받고 교수님 및 대학원 선생님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을 다시 기약하며 우린 헤어졌다.

한국에 돌아온 지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가끔 아자부 수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즐거운 경험들이 생각난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수의과대학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해보고 싶을 만큼 아자부 수의과대학교 탐방은 내게 큰 감명과 즐거움을 준 아주 값진 경험이 되었다.

–> 마지막 farewell party때 수료증을 받고 교수님들과 다함께 찍은 단체사진(왼쪽)과 아자부 대학 학생들과의 여행에서 찍은 사진(오른쪽)